

제3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

2016. 9. 30.(금) 14:00~16:30
서울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

개 회 사

2016. 9. 3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 일 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국채 콘퍼런스를 준비해주신
연합인포맥스 이선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국고채 전문딜러(PD*)와 국내외 금융전문가 및
채권시장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PD: Primary Dealer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국채 콘퍼런스는 한국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미래 좌표를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 채권 시장의 성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적지 않은 국내외의 도전과
글로벌 경제의 격랑(激浪)속에서도
착실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금년 5월에는 사상 최초로

채권 시장 규모가 **1,600조원**을 넘어섰고,

* (채권시장) 1,604조원 (주식시장) 1,516조원 (GDP, '15^P) 1,559조원

특히, 우리 국고채는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며

연간 거래량 **3,000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수요기반도 해를 거듭할수록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채시장은

북한 핵실험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매력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1950년 2월 우리 정부가
국채를 처음 발행한 이래
국채시장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 다양한 만기물들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채시장의 높아진 위상과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50년 만기 국고채」를
시범 발행합니다.

지난 9월 28일 입찰 결과
10개 社를 최종 인수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10월 11일**에
총 **1조** 천억원의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50년 만기 국고채의
성공적인 입찰을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이 초장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의 발행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능력과
국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半세기를 내다보는 자세로
재정정책을 설계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고채 50년물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하며
인수단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정부의 대응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같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겹쳐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수준(AA)에 올라섰으며,
우리 채권시장도 다른 신흥국과 구별되는
‘Advanced-emerging Market’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거시·금융·재정정책적 대응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채권시장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확실성과 위기의 파고(波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화된 불확실성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창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창조는 끊임없는 아이디어 교환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시간의 산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콘퍼런스가
새로운 창조를 향한 생각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토론하고, 또 함께 배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